

제주 무사증제도 마약 밀반입 통로로 악용

지난달 말 향정 혐의 말레이시아 국적 A씨 적발 필로폰 2kg 특수 제작 과자 봉지 등에 나눠 숨겨 2023년 필로폰 12kg 밀반입 시도 외국인들도 적발

최근 제주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자가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무사증제도가 마약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세관은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세관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경유,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2kg를 몰래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필로폰을 특수제작한 과자봉지와 가방, 외투 주머니, 신발 깔창 등에 나눠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2kg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중인 사항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6년간 제주세관 마약류 밀수입 적발 건수는 총 5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15건,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4

건, 2024년 15건이다.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2019년에는 여행자 2건, 특송·우편이첩 3건이었으며, 코로나19로 발길이 묶였던 2020~2021년은 모두 특송·우편이첩 건이었다. 이후 다시 하늘길이 재개된 2023년에는 특송·우편이첩 2건, 여행자가 2건이었고, 2024년에는 특송·우편이첩 11건, 여행자 4건이었다.

실제 지난 2023년 10월 27일에는 필로폰 12kg을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 2명이 제주세관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차 봉지에 넣어 선물처럼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반하던 물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

고했다.

일각에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마약 밀반입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마약거래상들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를 밀반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를 거쳐 국내선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해야하는 제주세관은 인력부족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마약수사팀이 전문적으로 있는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지역은 1개 수사팀이 마약, 관세법 위반 등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트럭, 버스 추돌... 운전자 1명 사망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트럭이 버스

를 추돌하며 트럭 운전자가 숨졌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15분쯤 대정읍 무릉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1t 트럭이 급행버스를 추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50대 트럭 운

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6일 새벽 사망했다.

당시 급행버스에 승객은 없었고, 50대 버스기사도 허리통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장마철 대비 전기안전사고 예방 활동

제주자치경찰, 교통안전시설 1764개소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도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본부와 ‘교통안전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기술정보 교류, 안전교육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한 갑작,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안전진단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점검은 도내 교통안전시설물 1764개(신호기 1120, 경보등 494,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 15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기설비 배선 손상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접지·절연저항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안전진단 작업 중 교통신호가 일시 소등될 수 있는 만큼, 작업구간 통행 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백금탁기자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내달 2일까지 157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일까지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2~4월에는 기온 상승과 급격한 일교차로 지반 속 수분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연약해지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높아진다. 이에 제주도는 급경사지, 교량, 건축물과 공사 현장 등 157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경사지 지역의 붕괴 위험과 낙석 여부 ▷도로 시설물의 파손과 포트홀 발생 여부 ▷옹벽·석축 등의 균열·전도 ▷기초 세굴 ▷주요 구조물의 손상과 변형 ▷공사 현장의 가시성과 위험 요인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육안 점검 외에도 드론과 비파괴 검사 장비, 디지털(IoT) 기반 계측 센서(균열계, 경사계, 가속도계) 등을 활용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선희기자



비닐씹우기 작업 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농작물 파종을 마치고 비닐씹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가상현실 활용 교통안전교육 실시

제주자치경찰, 10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자치경찰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저학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새 학기를 맞아 가상현실(VR) 기

술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 교육청과 협력해 오는 10일부터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간접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효과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인도·보도 올바른 통행방법, 학원버스 이용 안전수칙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봄철 화재 주의”...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최근 5년간 봄철 제주지역서 747건 화재 발생 담배꽂초 처리 등 부주의 화재 39.1%로 최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대부분이 건조한 봄철(3월~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소방당국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봄철 화재가 747건(26.8%) 발생하면서 4계절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 겨울 734건(26.3%), 가을 709건(25.4%), 여름 624건(22.4%) 순이었다.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9.1%(292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담배꽂초 처리가 89건으로 많았다. 뒤이어 쓰레기소각 56건이다.

장소별로는 야외·들불이 210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취약시설 안전환경 조성

등 선제적 화재예방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소방당국은 아파트·단독주택·컨테이너 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에 대한 대표자 면담 및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밖에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과 합동으로 연면적 5000㎡ 이상 현장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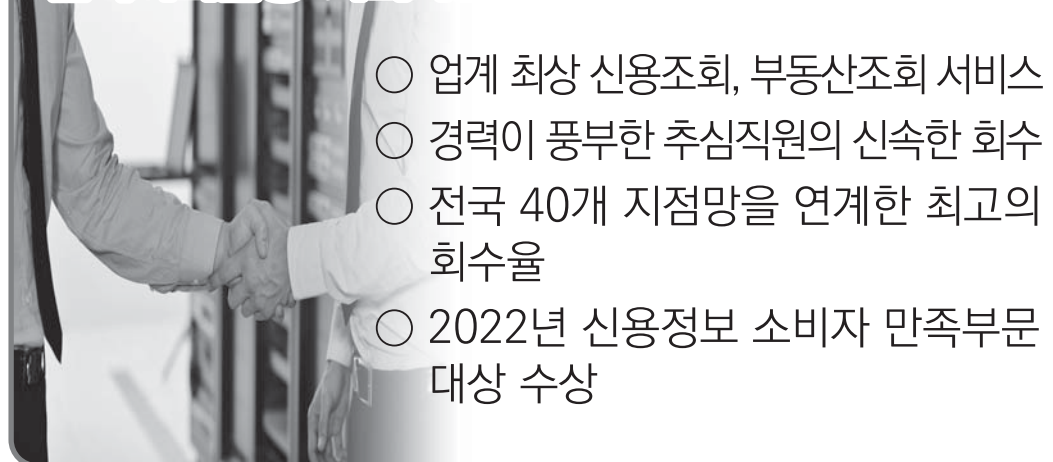
주영국 제주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봄날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